연구 논단

일본 지방청년의 진로 선택 시 성별에 따른 지역 간 이동의 차이*

박지환

1. 지방청년의 지역 간 이동과 지모토 지향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도쿄 일극 집중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지만,[1] 현재 일본 사회에서 인구이동의 강도는 크게 둔화된 상태다.[2]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한 청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고, 20대의 대도시로의 유입을 30~40대의 지방으로의 전출이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대 도시권 중에서 도쿄권으로만 2010년대 이후에도 매년 10만 명가량의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을 뿐이며, 오사카권과

박지환(朴志煥)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문화인류학 전공. 중학생의 진로선택,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탈원전 시위, 도시 하층 지역에서의 사회운동 등을 분석해, 일본사회에서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메커니즘과 일본 시민들이 이에 대응하는 양상을 탐구했다. 2021년부터 지방에 거주·이주하는 일본청년들의 생활세계를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현대 일본사회에서 이바쇼와 자립의 사회문화적 의미: 오사카시 예술-비영리조직에 관한 사례연구」(2017), 「슬럼에서 요세바로: 현대 일본에서의 주변적 남성성의 공간적 생산과 구성」(2020) 등이 있다.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임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그리고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459).

https://doi.org/10.29154/ILBI.2023.29.238

나고야권은 1970년대 초부터 이미 순유입 인구가 정체된 상태다.[3]

지방권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하, 지방청년)은 과거만큼 대도시권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10년마다 실시하는 국세조사(国勢調査)에는 5년 전 거주지(5年前の常住地)를 묻는 항목이 있어, 이로부터 성별, 연령별 인구이동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즉, 국세조사 시점보다 5년 전에 지방권에 거주했던 사람 중 어느 정도가 국세조사 시점에는 3대 도시권에 거주하고 있는가(=지방권 출신자의 대도시권 전출률)를 산출할 수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4] 지방권 출신자의 대도시권 전출률은 남녀 모두 20~24세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이 연령대의 대도시권 전출률은 남성의 경우 25%에서 13%까지 줄어들었고, 여성의 경우에도 15%에서 10%로 감소했다. 이것은 1985년에 15~19세였던 지방권 출신 남녀 중 각각 약 1/4과 1/7이 1990년에 3대 도시권로 이동했으나, 2010년에는 2005년에 지방권에 살았던 15~19세 남녀 중 약 1/8과 1/10만 3대 도시권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청년이 대도시로 나가지 않고 출신지역에 정주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진 것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요인 탓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청년이 대도시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됐다. 실제로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기술·관리직인 지방청년일수록 대도시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 출신은 출신지의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졸

1 마스다 히로야, 김정환 옮김,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와이즈베리, 2015.

2 Yoshitaka Ishikawa, "Internal Migration in Japan," in Martin Bell, Aude Bernard, Elin Charles-Edwards, and Yu Zhu, eds., *Internal Migration in the Countries of Asia*, Cham, Switzerland: Springer, 2020, p. 124.

3 일반적으로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을 3대 도시권, 나머지 지역은 지방권으로 분류한다. 도쿄권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오사카권은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나라현, 나고야권은 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을 포함한다. 総務省, 「住民基本台帳人口移動報告2022年結果」, https://www.stat.go.jp/data/idou/2022np/jissu/pdf/all.pdf(최종 검색일: 2023. 3. 15.).

4 山口泰史·松山薫, 「戦後日本の人口移動と若年人口移動の動向」, 『東北公益文科大学総合研究論集』 第27号, 2015, 100~102쪽.

업하고 바로 취업한다.[5] 특히, 고졸 지방청년 입장에서는 지방과 대도시 간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데 비해 대도시의 물가는 지방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대도시로 이동할 경제적 유인이 크지 않다.[6] 그 결과, 고졸 지방청년은 출신 지역의 생활권 내에서 취업하는 경향이 있다.[7]

그러나 지방청년의 '상경'(上京)은 경제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대도시에 대한 동경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고도경제성장기에 도쿄는 경제적 상승 또는 사회이동에 대한 희망이 집약된 공간이었지만,[8] 현재와 같은 후기성장사회(post-growth society)에서 도쿄는 과거만큼 욕망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9] 지방청년들 사이에서도 "도쿄는 '혼잡'(雑踏)하다는 이미지가 강하고 '가끔씩 놀러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대부분"일 정도로, 현재 일본 사회에서 "대도시 지향은 쇠퇴"하고 있다.[10] 대신 지방청년은 출신지역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외에 늘어난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그럭저럭 괜찮은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자 한다.[11] 따라서 지방청년의 정주 경향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가치 지향의 변화를 고려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자신의 출신지역에 정주하려는 성향을 지모토 지향(地元志向)이

5 이시구로 이타루 외, 엄창옥 외 옮김, 『지역청년, 왜 떠나는가: 동경으로 향하는 일본의 젊은이들』, 박영사, 2014, 95~96쪽.

6 이시구로 이타루 외, 『지역청년, 왜 떠나는가: 동경으로 향하는 일본의 젊은이들』, 77~79쪽.

7 阿部誠, 『地域で暮らせる雇用: 地方圏の若者のキャリアを考える』, 東京: 旬報社, 2021, 133~134쪽.

8 難波功士, 『人はなぜ〈上京〉するのか』,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1.

9 指出一正, 『ぼくらは地方で幸せを見つける: ソトコト流ローカル再生論』, 東京: ポプラ社, 2016; 松永桂子, 「若者の'ローカル志向'から時代を読む」, 『日経研月報』 第457号, 2016, 48~58쪽; Paul Hansen, "Rural Emplacements: Linking Heterotopia, One Health and Ikigai in Central Hokkaido," *Asian Anthropology* 21(1), 2022, pp. 66~79; Susanne Klien, *Urban Migrants in Rural Japan: Between Agency and Anomie in a Post-Growth Society*, New York: SUNY Press, 2020; Ksenia Kurochkina, "Japanese Rural Resettlers: Communities with Newcomers as Heterotopic Spaces," *Asian Anthropology* 21(1), 2022, pp. 53~65.

10 轡田竜蔵, 「若者の幸福とトランスローカリティ」, 『都市問題』 第111巻 第1号, 2020, 25쪽.

11 阿部真大, 『地方にこもる若者たち』, 東京: 朝日新聞出版, 2013.

라고 한다.[12] 지모토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모토의 의견을 듣다”에서처럼 “어떤 일과 직접 관계가 있는 토지”나, “지모토의 후보자”에서처럼 “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사람의 세력범위에 있는 토지”이다.[13] 그러나 지모토는 단순히 지리적 장소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규슈 대학 학생의 “지모토 의식”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지모토는 물리적 공간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 “거주경험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주관적 감정에 의해 좌우되기 쉬운 모호한 개념”이다.[14] 지모토는 “가족과 친구가 있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곳”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부터 “청년의 입장에서는 자극과 흥분이 결여되어 있고, 무엇인가를 달성할 기회와 가능성도 없는 시골(田舎)”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까지 내포한다.[15]

중층적인 의미를 내포한 지모토에 대한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대학 진학과 구직활동 시 청년들이 어떠한 지리적 이동의 양상을 보이는가에 주목했다. 지방권의 대학 진학자 중 대도시권의 대학이 아니라, 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 즉 출신현(出身県)의 대학에 입학한 비율(이하, 현내 대학 진학률)이 상승하면 지모토 지향이 강해졌다고 본다. 또한, 지방 청년이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후 출신현 소재 기업에 취직하거나, 타지역에서 대학을 나왔더라도 출신현으로 돌아와 취업하는 비율(이하, 현내 취업률)이 높아지면, 지모토 지향이 높아졌다고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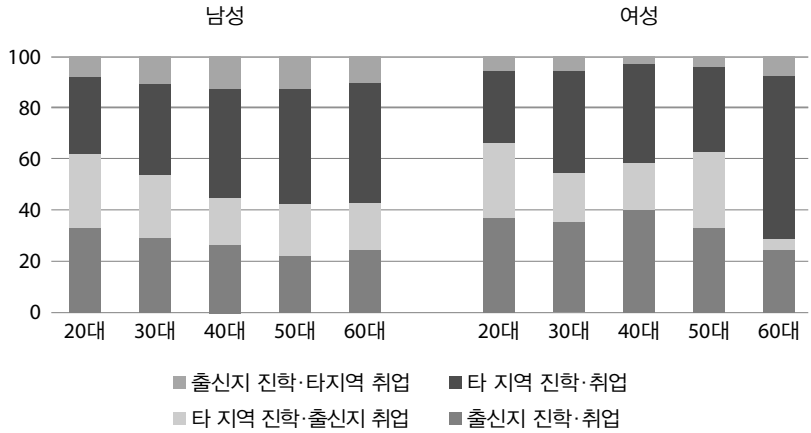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현내 대학 진학률은 1971년 49.3%에서 2015년에는 59.9%까지 상승했고, 같은 권역의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은 61.1%에서 74.9%까

12 轡田竜蔵,「過剰包摂される地元志向の若者たち」, 樋口明彦 他 編,『若者問題と教育·雇用·社会保障』, 東京: 法政大学出版局, 2011, 183~212쪽; 寺地幹人,「若者にとっての'地元': 青少年研究会2014年調査をもとに」,『茨城大学人文学部紀要 社会科学論集』第63号, 2017, 45~55쪽.

13 https://dictionary.goo.ne.jp/word/地元/(최종 검색일: 2023. 3. 16.). 고향은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 현재 그곳에 살지 않을 때, 그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현재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말할 때 지모토라고 한다. 따라서 지모토는 출신지(역)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문맥에 따라 지모토와 출신지(역)를 번갈아 사용한다.

14 安立清史,「'地元意識'という謎: 大学生の地元意識に関する因子分析」,『人間科学共生社会学』第9号, 2019, 116쪽.

15 安立清史,「'地元意識'という謎: 大学生の地元意識に関する因子分析」, 120~121쪽.



〈그림 1〉 지방권 출신 대졸자의 성별, 세대별 진학 및 취직 시 지리적 이동 패턴(단위: %)

출처: 労働政策研究 · 研修機構, 『若者の地域移動』, 東京: 労働政策研究 · 研修機構, 2015, 115~116쪽.

비고: 지방권은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을 제외한 지역이지만, 제7회 인구이동조사가 실시된 시점에 동일본대지진의 피해를 입은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중학교 졸업 시점의 거주지를 '출신지'로 하며, 대학의 소재지와 출신지가 같은 현이거나 다른 현에 있더라도 출신지에서 통학 가능한 경우를 '출신지 진학'으로 간주한다. 출신지와 같은 현에 있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했거나 다른 현에 있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더라도 출신지에서 통근 가능한 경우를 '출신지 취업'으로 간주한다.

지 증가했다.[16] 같은 기간, 도쿄권을 제외한 지역의 현내 대학 진학률과 권역 대학 진학률은 각각 34.4%에서 44.5%, 49.6%에서 65.3%로 상승했다. 반면, 도쿄권 이외의 지역에서 도쿄권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34.8%에서 18.7%로 감소했다. 현내 대학 진학률은 각 지역에 설치된 대학의 수, 지역의 산업구조 및 구인상황, 보호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도 좌우되므로, 현내 대학 진학률의 상승을 오로지 고등학생의 지모토 지향이 강해진 덕분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15년 시점에 총 779개 대학 중 224개(28.8%) 대학이 도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17] 현내·권

16 권역 대학 진학이란 예를 들어 후쿠오카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후쿠오카현을 포함해 규슈의 다른 현(나가사키현, 사가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를 뜻한다. Yukie Hori and Yuri Nakajima, "School-to-Work Transitions for Japanese Youth in a Globalized Era," in Akiyoshi Yonezawa, Yuto Kitamura, Beverley Yamamoto, and Tomoko Tokunaga, eds., *Japanese Education in a Global Age*, Singapore: Springer, 2018, p. 110.

17 Yukie Hori and Yuri Nakajima, "School-to-Work Transitions for Japanese Youth in a Globalized Era," p. 109.

역 대학 진학률의 상승 및 비도쿄권 학생이 도쿄권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의 하락은 지방학생의 선호도 변화를 반영한다.

또한, 지방권 출신자 중에 젊은 세대일수록, 현내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에 실시된 제7회 인구이동조사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18]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지방 출신 남성의 경우, 50대와 40대에서는 출신지역에 정착·유턴한 비율이 각각 42.4%와 44.6%였으나, 30대는 53%, 20대는 61.7%까지 상승했다(〈그림 1〉 참고). 반면, 같은 조건의 50대에서 30대까지의 지방여성이 출신지역에 정착·유턴한 비율은 63.1%에서 54.9%까지 하락했으나, 20대에서는 다시 65.6%로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대졸자는 고졸자에 비해 전문직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서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히 20대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앞선 세대보다 출신지역에 정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9]

흥미로운 사실은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의 현내 대학 진학률과 현내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남녀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성의 현내 대학 진학률은 남성의 현내 대학 진학률보다 일관되게 높았다.[20] 이 기간 중에 남성의 현내 대학 진학률은 37.3~40.4%였지만, 여성의 현내 대학 진학률은 41.2~45.1%였다. 또한,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대학원을 나온 지방권의 청년여성이 출신지역에 정착·유턴하는 비율-예를 들어, 20대 65.6%, 30대 54.9%-이

18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若者の地域移動』, 東京: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15, 115~116쪽.

19 제5회 인구이동조사(2001년)부터 제8회 인구이동조사(2016년) 결과를 이용해 지방권 출생자의 유턴 이동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0~39세 지방권 출생 대졸 남녀의 유턴 비율은 제7회 인구이동조사(2011년)까지는 상승했으나 제8회 조사에서는 하락했다. 그러나 이들 중 5년 이내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할 경우, 남성의 유턴율(2011년 43.5%에서 2016년 36.3%)은 하락했지만 여성의 유턴율(35%에서 40.1%)은 오히려 상승했다. 中川雅貴,「非大都市圏出生者におけるUターン移動の変化に関する分析: 特集 第8回人口移動調査の結果から(その2)」,『人口問題研究』第75巻4号, 2019, 392쪽. 특히, 1980년대 이후 지방권에서 출생한 청년의 유턴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나, "고졸자나 출신지역의 대학에 진학한 대졸자의 지모토 정착률이 상승한 것은 대체로 여러 연구에서 일치한 견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청년이 출신지역에 정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荻野達史,「'地方'の存続と'若者'問題: 適切な論じ方をめぐって」,『人文論集: 静岡大学文理学部文学科 研究報告』第73巻 1号, 2022, 55쪽.

20 田村一軌,『大学進学にともなう都道府県間人口移動』, 北九州市: アジア成長研究所, 2017, 5쪽.

같은 조건의 청년남성의 비율—20대 61.7%, 30대 53%—보다 높았다. 즉, 지방권의 청년여성이 청년남성보다 출신지역의 대학을 더 많이 '선택'하고 출신지역에서 취업하길 '선호'했다. 따라서 진로 선택 시 성별에 따라 지리적 이동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탐구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중에 대학 진학 및 취업 시 청년의 지역 간 이동 패턴을 젠더적 관점에서 질적연구방법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기존 연구는 진로 선택 시 청년의 지역 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1] 현내 대학 진학 지향 또는 취직 지향의 규정요인,[22] 지모토 지향이 취업의식이나 취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23] 부모가 자녀의 현내 진학 및 취직에 미치는 영향[24] 등을 양적인 연구방법으로 분석하는 데 머물렀고, 남녀 간의 차이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지방권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지역의 예비 엘리트로 출신지역에 정착시키는 역학이 존재한다는 점을 규명한 연구[25]와 자녀를 지방에서 대도시의 대학에 진학시키려는 부모가 겪는 아이러니를 분석한 연구[26] 등은 대학 진학 과정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앞선 양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의 차이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21 後河正浩,「若者の地域間移動の傾向と要因: 都道府県データでみる大学進学·初職就職時の地域間移動」,『京都産業大学経済学レビュー』6, 2019, 1~42쪽; 田村一軌,『大学進学にともなう都道府県間人口移動』, 2017.

22 井寺美穂,「大学生の地元就職志向に関する研究」,『アドミニストレーション』第27券 第2号, 2021, 84~93쪽; 杉山成,「大学生における地元志向意識とキャリア発達」,『小樽商科大学人文研究』第123輯, 2012, 123~140쪽.

23 田澤実·梅崎修, 2018,「地元志向がキャリア意識および保護者とのかかわりに与える影響: 全国の就職活動生を対象にして」,『地域イノベーション』第10巻, 27~33쪽; 平尾元彦·重松正徳,「大学生の地元志向と就職意識」,『大学教育』第3号, 2006, 161~168쪽; 平尾元彦·田中久美子,「就職活動を通じた地元志向の変化」,『大学教育』第13号, 2016, 65~71쪽.

24 片岡佳美·吹野卓,「高校生の地元·都会に対する意識と親の家族実践: 島根県の親子ペアデータの分析から」,『山陰研究』第13号, 2020, 87~96쪽; 吹野卓·片岡佳美,「地方の進学希望高校生の転出意識: 生徒と保護者のペアデータの分析」,『社会文化論集』第16号, 2020, 1~10쪽; 横田明子,「大学生の就職活動における地元志向に及ぼす家族関係の影響」,『広島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第二部, 文化教育開発関連領域』第66号, 2017, 223~230쪽.

25 吉川徹,『学歴社会のローカル·トラック: 地方からの大学進学』, 京都: 世界思想社, 2001.

26 片岡佳美,「親は子どもの県外移住にどのように関与したのか: 島根県若年層人口流出と家族実践についての一考察」,『ソシオロジ』第64巻 第3号, 2020, 113~129쪽.

이 연구는 규슈 지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중반의 청년과 실시한 온라인 인터뷰를 토대로, 대학 진학과 취업 시 지역적 이동에 있어서 남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지방청년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려는 시도다. 이 연구는 주로 인터뷰 자료에 의거한 질적 연구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는 없지만, 규슈 지역의 대졸 청년여성과 청년남성이 대학 진학 및 취업의 과정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상술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지리적 이동의 차이가 생기는 사회문화적 메커니즘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대학 진학부터 취업 시점까지의 지리적 이동에만 주목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타 지역에 취업한 지방청년이 출신지역으로 유턴을 고려하는 계기도 분석하고자 한다.[27] 왜냐하면, 이들이 취업 이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지방청년 남녀의 차이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대졸 지방청년의 지모토 지향에 대한 분석의 일부로, 규슈지역 청년과의 인터뷰는 2021년 여름과 2022년 여름에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총 24명과 인터뷰했으나, 이 논문에서는 규슈 이외의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3명(여성 2, 남성 1)과, 규슈 지역의 대학을 졸업했지만 도쿄권 출신인 남성 1명을 제외한, 20명(여성 13, 남성 7)과의 인터뷰 결과를 주된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이들은 후쿠오카현, 나가사키현, 사가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규슈 소재 대학에 진학해 법학, 국제관

27 대도시권에서 취업한 지방청년이 유턴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더라도 실제로 출신지로 유턴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대도시권에서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20대 초중반의 지방청년이 어떤 일을 계기로 지모토로 되돌아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실제 유턴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지모토와의 관계 맺기 방식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

계학, 언어학, 미술사, 심리학, 약학, 농학, 지구행성과학, 우주항공공학 등을 전공한 20대 초중반의 청년이다.

규슈 출신 청년을 연구참여자로 선택한 이유는 2021년 이 연구를 기획할 때 도움을 준 한국인 연구보조원이 우연히도 규슈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이었다. 2022년에는 연구참여자의 지역적 공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슈 소재 대학을 졸업한 일본인 유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뽑았다. 두 연구보조원의 고등학교 및 대학 동창, 그리고 인터뷰한 지방청년의 형제나 친구를 추가로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했다. 대학 진학만이 아니라 취업에 관한 지방청년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로는 이미 대학을 졸업했거나 취업이 결정된 대학 4학년 학생을 주로 모집하고자 노력했다. 마침 두 연구보조원은 성별이 달랐고, 졸업한 대학의 유형도 국립과 사립으로 상이했기 때문에, 규슈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남성 연구자로서는 다행스럽게도 연구참여자로 남성보다 여성을 더 많이 모집할 수 있었고, 국립대와 사립대의 재학생·졸업생을 각각 10명씩 인터뷰할 수 있었다. 2022년 7월 현재, 연구참여자에 관한 기본정보는 〈표 1〉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성별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가명 대신 여성 연구참여자는 'W+인터뷰 순서,' 남성 연구참여자는 'M+인터뷰 순서'로 표시했다.

연구참여자는 대부분 학업수준이 뛰어난 편이었다. 이들은 "동급생의 90%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위권 고등학교를 나왔고, 20명 중 18명은 편차치 60 전후, THE 세계대학랭킹 일본판에서 30위 내에 드는 상위권 대학을 졸업했다. 편차치는 학교의 입학 난이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도쿄대의 편차치가 68에서 72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성적이 준수한 학생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력자본 덕분에, 인터뷰 시점에 대학생이었던 2명(W8, W13), 대학원생(W6, M4)이거나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M1)이었던 3명을 제외한 15명은 모두 후쿠오카현, 나가사키현, 도쿄도, 지바현, 오사카부 등에 있는 회사에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정규직으로 입사했거나 내정(内定)을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 참여한 지방청년

〈표 1〉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2022년 7월 현재)

연구참여자	대학유형	고용상의 지위/직장의 위치	기타 정보	인터뷰일시
W1	사립	자영업(가족기업)/후쿠오카현	4학년	2021. 7. 18.
W2	사립	정규직/오사카부	2021년졸	2021. 7. 22.
M1	사립	파트타임/오이타현	2020년졸	2021. 7. 26.
M2	사립	정규직/후쿠오카현	2021년졸	2021. 7. 26.
W3	사립	정규직/지바현	2021년졸	2021. 7. 26.
M3	사립	정규직/도쿄도	4학년	2021. 7. 27.
W4	사립	정규직/도쿄도	4학년	2021. 7. 27.
W5	사립	정규직/오이타현	4학년	2021. 7. 29.
W6	국립	석사과정	2021년졸	2022. 5. 20.
M4	국립	석사과정	2021년졸	2022. 6. 15.
W7	국립	정규직/후쿠오카현	2021년졸, 공무원	2022. 6. 19.
W8	사립	대학생	2학년	2022. 6. 25.
W9	국립	정규직/나가사키현	2021년졸	2022. 6. 25.
W10	국립	정규직/후쿠오카현	2021년졸, 공무원	2022. 6. 26.
W11	국립	정규직/후쿠오카현	2021년졸, 공무원	2022. 6. 26.
W12	국립	정규직/도쿄도	2018년졸, 석사	2022. 6. 26.
W13	사립	대학생	1학년	2022. 6. 30.
M5	국립	정규직/도쿄도	2018년졸, 석사	2022. 7. 9.
M6	국립	정규직/도쿄도	2018년졸	2022. 7. 20.
M7	국립	정규직/도쿄도	2018년졸, 석사	2022. 7. 24.

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크게 유행한 시기에 이 연구를 기획·실시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중 한국에 체류 중이던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줌(zoom)을 이용해 45분에서 60분가량 인터뷰했다. 인터뷰에 앞서 연구보조원을 통해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함께 대략적인 질문목록을 전달했다. 모든 인터뷰는 연구자가 직접 일본어로 진행했으며, 대학과 직장을 선택한 이유, 출신지역에 대한 감정, 그리고 결혼을 포함한 향후 계획 등을 질문했다. 생면부지의 연구참여자와 온라인상으로 대화해야 하는 어색한 상황을 완화하

기 위해, 연구보조원이 온라인 인터뷰에 종종 참여했고, 연구보조원도 인터뷰 말미에 인터뷰 내용에 대한 감상이나 질문을 덧붙이기도 했다.

온라인 인터뷰가 낯설기는 했지만,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고, 허락을 받은 후 인터뷰 내용을 녹화·녹음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인터뷰 내용을 복기하는 데 도움이 됐다. 2021년 조사 때는 줌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반복해서 보고 들으며 인터뷰 내용을 필드노트에 한국어로 옮겨 적었지만, 2022년 조사 때는 클로바노트라는 녹음-전사 앱을 사용해 인터뷰 내용을 확보한 후 필자가 인터뷰 도중 기록한 내용과 줌 동영상 파일을 참고해 필드노트를 수정했다. 그리고 필드노트를 검토하면서 부족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메신저 중 하나인 라인(LINE)을 이용해 연구참여자에게 연락해 추가로 질문했다.

인터뷰 자료를 별도의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지는 않았다. 대신, 필드노트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인터뷰 내용을 4가지 범주—대학 진학, 취업, 결혼, 그리고 출신지역에 대한 인식—로 분류했다. 그리고 개별 연구참여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4가지 범주에 따라 요약·정리한 엑셀파일을 참고하며, 남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했다.

아울러, 규슈 지역 청년의 대학 진학과 취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정부, 현청, 각 현에 설치된 후생노동성 산하 노동국, 민간 취업정보회사 등이 산출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먼저,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의 현내 대학 진학률은 일본 정부가 지방창생 정책의 일환으로 만든 RESAS 지역경제분석시스템(https://resas.go.jp) 중 인구지도—당해 졸업생(新卒者)의 취직·진학 항목에서 파악했다. 같은 항목에서 각 현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의 비율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 수치는 대학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 단기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한 비율이었다. 선행연구도 현재 일본 정부가 공개하는 통계자료에서 대졸자만의 현내 취업률을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28]

28 田村一軌, 『大学進学にともなう都道府県間人口移動』, 41쪽.

따라서 규슈 지역 대졸자의 현내 취업률은 현청이나 각 현에 설치된 후생노동성 노동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했다. 하지만 규슈의 7개 현청과 노동국 중에서 규슈 소재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의 '현내 취업률'을 집계하고 성별 상세 데이터까지 공개한 곳은 오이타현(大分県新規学卒者実態調査, 2005~2022), 미야자키현(新規学卒者の求職·求人·就職内定状況, 2015~2023), 가고시마현(鹿児島県の新規学卒者の職業紹介状況, 2007~2022) 3곳에 불과했다. 다른 현청이나 노동국은 대졸자의 '현내 취업률'을 집계하지만 성별 상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거나, 중졸자·고졸자의 현내 취업률만 제공했다. 따라서 '현내 취업률'의 남녀 차이는 위 3개 현에 한정해 분석했다.

한편, 규슈의 각 현에서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의 지리적 이동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는 리쿠르트(リクルート)와 마이나비(マイナビ) 같은 취업정보회사가 실시한 조사를 통해 파악했다. 규슈 지역 출신 대졸자의 취업 시 지역 간 이동의 전반적인 양상은 리쿠르트의 취직미래연구소(就職みらい研究所)가 2016년부터 해마다 발표하는 보고서, 『대학생의 지역 간 이동에 관한 리포트: 대학 캠퍼스 소재지로부터 보는 취직 예정 소재지까지의 패턴』(大学生の地域間移動に関するレポート: 大学キャンパス所在地から見る就職予定先所在地までのパターン)을 통해서 파악했다. 그리고 마이나비가 2012년부터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 『마이나비 대학생 유턴·지모토 취직에 관한 조사』(マイナビ大学生Uターン·地元就職に関する調査)에서는 규슈 및 전국 대학생의 지모토 취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알 수 있었다.

3. 규슈 지역 청년의 대학 진학 및 취업의 추이

규슈 지역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 시 지리적 이동에 관한 시계열적 추이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모든 현에서 현내 대학 진학률이 상승했다.[29]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나가사키현과 미야자키현 출신 고등학생의 현내 대학 진학률은 2배 이상 증가했고, 후쿠오카현, 사가현, 구마모

〈표 2〉 규슈 지역 현내 대학 진학률의 남녀 간 차이의 추이

연도	2000		2005		2010		2015		2020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국평균	27.68	31.85	29.46	33.40	31.13	35.62	30.56	35.83	30.89	36.73
후쿠오카	60.83	64.60	60.88	64.90	62.60	67.04	60.54	67.68	61.85	68.11
나가사키	19.84	41.51	24.84	46.62	24.67	45.05	22.26	45.58	27.90	44.04
사가	9.20	17.21	11.13	19.37	11.69	16.37	11.41	16.82	13.57	19.44
오이타	14.62	22.54	16.51	25.99	20.45	25.93	21.80	24.54	25.46	26.74
구마모토	43.25	51.68	43.96	52.86	44.50	55.10	42.12	50.37	41.12	50.25
미야자키	17.41	25.46	19.88	24.84	22.96	28.53	24.90	31.72	23.15	30.96
가고시마	35.74	41.09	36.41	38.28	34.26	34.87	31.75	34.42	32.80	33.56

출처: RESAS 지역경제분석시스템(地域経済分析システム), https://resas.go.jp에서 인구지도—졸업생 취업 및 진학(人口マップ—新卒者就職·進学) 항목 (최종 검색일: 2023. 3. 17.).

토현, 오이타현은 1.4~1.5배, 가고시마현은 1.2배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2020년 규슈의 각 현에서 도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비율은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가고시마현의 경우 1980년의 절반 수준까지 줄었으며, 구마모토현과 미야자키현은 1/3, 후쿠오카현은 1/5 감소했다.

그러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 이후, 일본 전체적으로나 규슈 지역의 각 현에서도 여성의 현내 대학 진학률은 남성의 현내 대학 진학률보다 일관되게 높았다. 오이타현과 가고시마현처럼, 남녀 간 차이가 1% 정도인 적도 있었지만, 나가사키현에서는 20% 이상 차이가 난 시기도 있었다. 이처럼 남성보다 여성의 현내 대학 진학률이 높은 이유는 "여성 진학자가 남성 진학자에 비해 [대학을 선택할 때] 지역의 거주환경이나 대학의 교육수준보다 출신지역으로부터의 거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30]

한편, 규슈 지역 출신 대졸자의 취업 시 지역이동 동향은 리쿠르트사 취직미래연구소의 『대학생의 지역 간 이동에 관한 리포트』에서 파악할 수 있

29 川田力, 「九州地方における大学進学移動の時系列的推移」, 『岡山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研究集録』 第179号, 2022, 48~49쪽.

30 田村一軌, 『大学進学にともなう都道府県間人口移動』, 28쪽.

다.[31] 취직미래연구소는 리쿠르트사의 회원 중 해당연도 졸업자 중 취업이 확정된 대학생을 상대로, 취업과 지역이동에 대한 조사를 2016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대학 캠퍼스 소재지를 기준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도도부현별, 그리고 11개 권역별로 집계하고, 대학 소재지와 고등학교 소재지가 같은 도도부현일 경우를 지역 출신, 그렇지 않은 경우를 타지역 출신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지역 출신자와 타지역 출신자가 대학 졸업 후 어디서 취업했는지를 조사한다.

〈표 3〉은 이 보고서에서 규슈 지역의 대학을 나온 학생의 취업상황을 이들의 출신지역과 직장 소재지의 일치 여부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표 3〉으로부터 규슈 출신의 대졸 청년이 출신지역에서 취업하는 비율이 2010년대 중반에 비해 10% 이상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이후 지역 출신자의 지역 내 취업률이 이전 시기보다 5~10%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도쿄권(66.6%)과 나고야권(70.0%)에 이어, 지역출신자의 지역 내 취업률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규슈 지역 대졸 청년의 지역 내 취업 경향이 강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32]

한편 〈표 4〉는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소재 대학을 갓 졸업

31 취직미래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오키나와현 대학 졸업자를 규슈 지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 수가 적어 규슈 대졸자의 취업 시 지리적 이동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32 규슈 출신 대졸 청년의 지역내 취업률 상승 원인은 경제적 측면과 그 이외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일본 전체를 9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 총생산의 구성비(2018년 기준)를 산출하면, 규슈의 권역 총생산액의 비율은 8.4%이고, 후쿠오카현의 현내총생산 규모(19조 1,000억 엔)가 전국 47개 도도부현 중 8위로 큰 편이어서 대졸자를 위한 노동시장이 일정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규슈 소재 사업체의 업종별 구성비를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도소매업, 숙박업·음식서비스업, 의료·복지업,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건설업, 제조업, 부동산업, 물품임대업의 비중은 낮아, 청년(남녀)의 고용기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経済産業省九州経済産業局, 『九州経済の現状2021年版』, 2022, 4쪽, 7~8쪽. 한편, 규슈 출신자는 취직미래연구소의 조사에서 "지모토가 살기 익숙한 환경이라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부모님도 가까이 살고 있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으며, "지모토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업활동을 할수록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일수록 취업활동을 하기 전보다 그 이후에 더욱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게 됐다고 답했다. 就職みらい研究所, 『大学生の地域間移動に関するレポート: 大学キャンパス所在地から見る 就職予定先所在地までのパターン』, 2022, 118쪽, 130쪽.

〈표 3〉 규슈 지역 대학 졸업자의 출신지역에 따른 취업 상황(단위: %)

	지역출신 + 지역 내 취업자	지역출신 + 타 지역 취업자	타 지역 출신 + 지역 내 취업자	타 지역 출신 + 타 지역 취업자
2016	52.7	23.1	5.1	19.1
2017	57.1	25.9	3.5	13.5
2018	61.6	29.4	2.4	6.7
2019	66.2	21.9	1.9	10.0
2020	63.3	20.6	4.0	12.1
2021	75.6	15.6	2.2	6.7
2022	76.0	14.0	3.3	6.6
2023	68.0	18.8	2.4	10.2

출처: 就職みらい研究所, 『大学生の地域間移動に関するレポート: 大学キャンパス所在地から見る 就職予定先所在地までのパターン』, 각 연도.

〈표 4〉 규슈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 남녀의 현내 취업률 추이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오이타	남	28.3	30.1	26.6	29.1	26.6	28.8	29.9	30.7
	여	35.1	36.4	31.1	35.9	31.6	32.4	35.1	35.3
미야자키	남	37.3	34.2	37.3	33.6	32.5	32.6	35.2	35.1
	여	43.0	43.2	48.4	42.1	44.9	39.4	44.7	42.8
가고시마	남	46.2	43.1	47.0	45.7	40.2	43.7	45.0	45.5
	여	51.5	57.0	54.9	52.8	49.8	49.6	50.3	52.5

출처: 大分県, 「大分県新規学卒者実態調査」, 각 연도, https://www.pref.oita.jp/site/toukei/shinki.html; 鹿児島労働局, 「鹿児島県の新規学卒者の職業紹介状況」, 각 연도, https://jsite.mhlw.go.jp/kagoshima-roudou-kyoku/jirei_toukei/toukei/kyujin_kyushoku/gakusotu.html; 宮崎労働局, 「新規学卒者の求職 · 求人 · 就職内定状況」, 각 연도, https://jsite.mhlw.go.jp/miyazaki-roudoukyoku/jirei_toukei/naitei.html(최종 검색일: 2023. 4. 19.).

한 남녀의 연도별 '현내 취업률'을 보여 준다.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에는 타 지역 출신이 진학하므로, 이 수치는 각 현 출신자가 출신현에서 대학을 나온 후 취업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현 출신자가 대학 졸업 후 출신현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학 소재지에서 취업한 경우도 포함한다. 반면 규슈 출신자 중 타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후 출신현으로 돌아와 취업한 경우는 포함하지 못한다. 하지만 〈표 3〉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규슈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 중 규슈 지역에 잔류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 4〉의 수치로도 규슈의 각 현에서 나고 자란 대졸자의 현내 취업률 추이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4〉에서 대졸자의 '현내 취업률'은 가고시마현, 미야자키현, 그리고 오이타현 순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내 취업률'의 고저와 관계없이, 모든 현에서 여성의 '현내 취업률'이 남성의 '현내 취업률'보다 일관되게 높게 나타난다. 여성의 '현내 취업률'이 오이타현의 경우 5~7%, 미야자키현 6~12%, 가고시마현 5~9% 남성보다 높다. 이 점은 위 표에 제시하지 않은 기간(오이타현은 2004~2014, 가고시마현은 2013~2014)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경향은 고령화율이 높은 지방현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고용 수요가 커서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33]

이상의 양적 자료를 통해, 규슈 지역 청년이 출신지역의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대학 진학과 취업 시, 이들의 지리적 이동의 패턴이 성별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다음 절부터는 규슈 지역의 상위권 대학 졸업생·재학생과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진로선택이 달라지는 과정을 지방청년 스스로가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4. 성별에 따른 대학 진학의 차이

20명의 연구참여자 중 출신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그곳을 졸업한 사람은 모두 13명이었다. 이를 대학의 유형으로 나눠 보면, 사립대 진학자

33 오이타현 신규 졸업자 실태조사(大分県新規学卒者実態調査)는 대졸자의 산업별, 성별 취업자 수를 20개의 산업부문에 따라 집계하는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2022년 3월 오이타 소재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보건·의료 분야에 가장 많이 취업했다. 흥미로운 점은 오이타현에 남아 의료복지 분야에 취업한 청년의 비율(29%)이 해당 분야의 전체 취업자의 비율(16.7%)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오이타현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취업한 대졸 청년여성의 비율(40.1%)이 같은 조건의 남성의 비율(18%)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大分県, 「大分県新規学卒者実態調査」, 2023, https://www.pref.oita.jp/uploaded/attachment/2176713.pdf, 4~6쪽(최종검색일: 2023. 4. 21.).

10명 중 7명, 국립대 진학자 10명 중 6명이 출신현의 대학에 입학했다. 성별에 따라 구분해 보면, 여성 13명 중 8명(61.5%), 남성 7명 중 5명(71.4%)이 출신현의 대학에 진학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참여한 지방청년은 남성이 여성보다 현내 대학 진학을 선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험생은 대학을 선택할 때, 대학의 입지만이 아니라 본인의 성적과 관심사, 교사의 진로지도, 보호자의 경제력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연구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대학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 상이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녀에 관계없이 모든 연구참여자는 대학 선택 시 본인의 관심사를 중시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립대 진학자 중에서 M4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현내 국립대학이 개최한 행사에 참여했다가 우주비행사에 관심을 갖게 되어 관련 학과에 진학했으며, W12는 환경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농학을 선택했다고 했다. 관심사가 대학 선택에 미친 영향은 사립대 진학자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왜냐하면 사립대 진학자 중 8명은 유학생이 많고 일부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국제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 학습에 흥미가 있거나 국제적인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남녀 학생(W1, W2, W4, W5, M1, M3)이 이곳을 선택했다.

연구참여자는 대학 선택 시 성적도 고려했다(M2, M6, W6, W7). 하지만 이들이 성적만 참고해서 대학을 선택했다면, 타 지역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깃카와 도루가 시마네현 고등학생에 대한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34] 지방권 고등학교의 진로지도에서 특징적인 점은 교사가 학생을 지역의 국립대에 진학하도록 독려한다는 사실이다. 청년인구의 유출을 겪고 있는 지방현은 지역사회의 행정, 교육, 의료 분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위권 학생이 지역 대학을 나와 그곳에서 공무원, 교사, 의사, 간호사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현의 국립대학은 지역사회 예비 엘리트의 산실이다.

34 吉川徹, 『学歴分断社会』, 東京: 筑摩書房, 2009.

이런 점은 이 연구에 참여한 지방청년에게도 드러난다. W6는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반의 20% 정도가 ○○[국립]대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입학하기 위한 수험대책이 너무 탄탄해서 저에게는 ○○대에 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거든요.”라고 말했다. 이런 경험은 국립대 진학자만이 아니라 사립대 진학자에게도 공통된 것이었다. M3은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단지 국립대학을 목표로 계속 공부만 [독려]하는” 지방 고등학교의 전형적인 교육방식에 거부감을 느껴, 사립대를 선택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지방청년은 대학 선택 시 가족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했다. 사립대 진학자 중 경제적 요인을 언급한 연구참여자는 한 명도 없었으나, 국립대 진학자는 남녀 모두 경제적 여건이 대학 선택 시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강조했다(W6, W7, W10, W11, M5, M7). 특히 출신현의 국립대학에 진학한 청년은 국립대학은 학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통학을 하면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대학 선택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이처럼, 이 연구에 참여한 지방청년은 남녀 모두 자신의 관심사, 학업성적, 교사의 진로지도, 가족의 경제적 여건 등을 규슈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배경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참여한 청년남성은 대학 진학 시 지리적 요인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 중에도 M4, M5, M7처럼 집안의 경제적 사정이나 부모님 집에서 통학하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출신현에 있는 대학이나 규슈 지역의 대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지역 잔류희망을 명시적인 대학 선택의 이유로 제시한 남성 연구참여자는 “30% 정도는 지모토에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서” 현내 대학에 진학했다고 답한 M1이 유일했다.

이에 비해, 여성 연구참여자 중에는 상당수가 출신현이나 규슈 지역에 남는 것을 전제로 대학을 선택했다. 도쿄권의 대기업에 취업한 W12도 대학에 진학할 시점에는 “별로 규슈를 떠나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설치된 국립대학에 진학했다. 후쿠오카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W10은 대학 진학 시점에 이미 "취직은 후쿠오카"에서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학 4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생활해 온] 후쿠오카를 떠나 여러 가지로 혼자서 생활하는 것도 좋을까" 싶어서 오사카권의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부모님 집에서] 너무 먼 것도 역으로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곳"인 인접 현의 국립대학을 택했다.

나아가, W3, W4, W5, W8은 보다 명시적으로 출신현 혹은 규슈 지역에 남는 것 자체를 중시하며 대학에 진학했다. 특히, W5와 W8은 이른바 AO(administration office)입시를 통해 사립대에 진학한 경우였다. 주로 사립대학이 채택하고 있는 AO입시는 내신성적, 면접, 에세이, 추천서 등을 토대로 학생을 선발한다. 또한, 사립대학은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고등학교나 특정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고등학교 측에 추천가능한 인원을 지정하는 제도(指定校推薦)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AO입시나 학교장 추천입학제도를 활용해 사립대학에 응시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출신지역 소재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W8은 "도쿄의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왠지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고등학교와 같은 사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진학했다. "부모님도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에 추천[입학]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흥미로운 점은 W8 이외에도 W3과 W4도 어머니가 출신현이나 규슈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권유했다는 사실이다. 어릴 적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아 도쿄권의 패션회사에 취업한 W3도 "어머니가 먼저 대학까지는 집에서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지모토에 가족도 있고요. 그때만 해도 [타지에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이 [국제]대학에서 배우고 싶은 것도 있어서 다른 지역의 대학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남동생도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저는 꼭 이 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오히려 동생이 그랬지요."라고 대답했다.

W2는 "일본인 이외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서" 국제대학을 선택했다며, "대학 소재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국제대학이 "마침 ○○

[출신현]에 있어서 좋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W2의 경우에도 가족 관계가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대학이 있는 "△△시에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셨는데, 어릴 때 할아버지가 저를 돌봐 주었던 것처럼, 은혜를 갚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할아버지를 돌봐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라고 출신현의 대학을 선택한 이유를 부연 설명했다.

물론 여성 연구참여자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호자나 형제의 권유만으로 대학 진학 시 규슈에 잔류한 것은 아니었다. W13은 "지모토의 의료에 공헌하고 싶다"는 이유에서 타지역의 유명 사립대학 약학과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신현의 사립대학 약학과를 선택했다. 대학과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W13은 "저는 ○○[출신현]에서 취업하고 싶어서요. ○○ 약사들의 출신 학교를 찾아봤을 때, 역시 [W13이 선택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실적을 보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극적이거나 내향적이어서 대학 진학 시 출신 지역에 남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여성 연구참여자 중에는 M2처럼 "어디에 있는 대학인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배우고 싶은 것과 학력(学力)을 고려"하면서 "이중언어[일본어와 영어]로 배우는 것이라거나 학생의 절반이 유학생이라는 점, 일본 학생이라도 여러 지역에서 모이는 것, 말하자면 다양성이 있는 환경"을 중시했다고, 오로지 본인의 성적과 관심사로만 대학 선택의 이유를 설명한 경우는 없었다. 남성 연구참여자 중에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가급적 규슈 지역 내의 국립대학에 진학하라고 한 사례(M7)를 제외하면, 보호자가 자녀의 지역 내 잔류를 권한 경우도 없었다. 반면, 여성 지방청년 중에는 W2처럼 "대학 소재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면서도, 할아버지를 돌봐 드리기 위해 출신현에 진학했다고 말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일부 청년여성은 부모의 권유로 규슈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선행연구도 진학할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에서 남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야마구치현 쇼나이

(庄内)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는 아들보다 딸이 출신지역에 남길 희망했으며, 특히 부모가 지방 생활에 만족할수록, 어머니가 타 지역에서 살아 본 경험이 없을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35] 시마네현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연구도 딸이 도시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려면 어머니의 도시지향이 강하고 외국에 대한 관심이 커야 하지만, 아들의 경우에는 그와 상관없다는 점을 발견했다.[36] 따라서 지방권의 청년여성이 청년남성에 비해 부모세대의 기대에 부응해, 출신현에 있는 대학을 '선택'하므로, 여성의 현내 대학 진학률이 남성의 현내 대학 진학률을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추론할 수 있다.

5. 성별에 따른 취업행동의 차이

연구참여자 20명 중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인 5명을 제외한 15명은 모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37] 이들의 직장 소재지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M3, M5, M6, M7)과 같은 수의 여성(W2, W3, W4, W12)이 도쿄권과 오사카권에서 취직했다. 나머지 7명(M2, W1, W5, W7, W9, W10, W11)은 출신현이나 규슈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얼핏 보기에 여성이 남성보다 규슈 지역에서 취업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서 대학 진학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의 특성상 양적 분포보다 직장을 선택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35 山口泰史 他,「山形県庄内地域における若年人口の流出と親世代の意識」,『地学雑誌』第125巻 第4号, 2016, 493~505쪽.

36 片岡佳美·吹野卓,「高校生の地元·都会に対する意識と親の家族実践: 島根県の親子ペアデータの分析から」, 94쪽. 앞서 언급한 M7의 부모는 M7에게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하라고 독려해, M7은 도쿄권에서 취업했다. 반면, M7의 여동생은 부모의 권유로 간호고등전문학교를 나와, 출신현의 현청소재지에서 일하고 있다.

37 인터뷰 당시 학생이었던 연구참여자에게도 취업 희망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다. M1과 M4는 각각 해외와 도쿄권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고, W8과 W13은 모두 출신현에서 공무원과 약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W6는 근무 지역에 대한 언급 없이, 취업한다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중시하고 싶다고 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규슈 지역의 청년남성은 청년여성에 비해 취업경험을 설명할 때 취업기회와 개인적 확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M5, M6, M7은 모두 이공계 전공자였는데, 역시 이공계 대학원에 재학 중인 M4를 포함해서, 이들은 모두 도쿄권에 취업했거나 취업하려는 이유가 규슈 지역을 떠나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IT, 프로그래밍 등 분야의 구인수요가 도쿄권에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도쿄권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편이 자신의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데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규슈 지역을 떠난 것이라고 대답했다.

도쿄권의 인재파견회사에서 AI 개발 업무를 하는 M6는 "아는 지식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회사를 선택했으며, "출신이 규슈라서 남쪽이니까 너무 북쪽만 아니면 좋다는 이미지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어디라도 좋다는 마음"이었는데, 우연히 도쿄 지사에 배정을 받았다고 했다. 대학원은 도쿄권에서 나온 M5도 "도쿄에 IT기업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쿄에서 취업활동을 하게 되었고," "장래에는 지방의 회사에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처음에는 중앙이라고 할까, 도쿄에 있는 회사가 자신의 공부라든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도쿄권의 한 외국계 IT기업에 입사했다고 답했다.

문과계열에 속한 청년남성 M1, M3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대도시나 해외에서 취업하길 희망했다.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 대학 재학 중에도 대학 소재지에서 음악공연과 본인의 그림 전시를 결합한 이벤트를 열기도 했던 M3은 도쿄권의 한 패션회사로부터 내정을 받았다. 도쿄와 오사카 중에서 일할 곳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아티스트로서의 스킬을 향상시키려면 아티스트의 전시 기회가 많은 곳은 일본에서 오사카보다는 도쿄이고, 비슷한 장르를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서" 도쿄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M1은 전체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게 해외 취업을 경험한 청년이었다. 대학에 들어와 유학생과 교류하며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에 흥미를 느끼고 재능을 발견해 적극적으로 해외 취업을 시도했다. 2020년 대만의 어학원에 취업했으나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수개월 만에 귀국했고,

인터뷰 당시에는 외국인 대상 일본어교육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었으며, 대학원 졸업 후 더 나은 조건으로 해외에 취업하길 희망했다.

M2는 남성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게 규슈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외국계 대기업 요식업체에 취업했는데, 첫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본사가 있는 도쿄가 아니라, 본인의 출신현은 아니지만 규슈의 다른 현에서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인터뷰를 시작할 때는 "일하는 장소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라고 했지만, 인터뷰 도중 "조금은 규슈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정정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 1년차는 "사투리나 음식, 단골가게 등을 알고 있다는 데서 안심할 수 있고, 아는 사람이 많은" 규슈에서 시작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도시에서] 살려면 월세도 비싸서 살 수 없겠지만 회사에서 월세도 꽤 부담해 주기 때문에" 회사 일에 익숙해진 후에는 도쿄나 교토에서 일해 보고 싶다고 했다. 따라서 규슈에 남은 M2조차도 타 지역에서 일하는 것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 이 연구에 참여한 대졸 지방여성은 대도시에 취업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출신지역에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직장을 선택했다. W4는 "취업활동을 3학년 초에 시작"해서 "자기 분석을 토대로 30곳에서 50곳 정도의 회사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지원"한 결과, 최종적으로 도쿄에 본사가 있는 노인 돌봄 회사에 취직해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온라인 인터뷰 중에는 본인이 구직활동을 할 때 사용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공유하며, "누군가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서로의 개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환경인가, 일의 선택 폭이 넓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가"라는 3가지 기준으로 직장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말을 마치자마자, "이 회사로 결정한 이유는 제가 규슈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모토에 돌아올 수 있는가, 그런 가능성이 보장된 회사를 우선적으로 골랐다"고 설명했다. 규슈 지역의 회사는 사고방식이 낡아서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회사라서 이곳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3년간은 전문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도쿄에서 열심히 일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어서 늦어도 20대 후반까지는 출신지역으로 돌아와 결혼을 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는 일에 열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W2는 출신현에 위치하고 있는 모교(대학)의 행정실 직원으로 일하길 희망했지만, 오사카권의 직업훈련기관에 강사로 취업한 경우였다. "첫 직장으로 일하는 장소는 ○○[출신현]보다 큰 곳이어야 여러 가지로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사카는 "살기 힘든 곳"이고, 여전히 "몇 년 후에는 ○○[출신현]에서 ○○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익힌 지식을 활용해, 대학생이나 지역 주민의 취업활동을 돕고 싶다고 했다. 즉, 일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출신지역에 정착하려는 희망을 연계해서 진로를 계획했다.

한편, 규슈 지역에서 첫 직장을 구한 여성 연구참여자 중에는 출신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과 심리적 안정성까지 고려한 경우가 두드러졌다. W5는 "지모토에 남고 싶다는 생각이 크"고 "특정 분야에 취업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서, 출신현에 있는 회사만 알아보던 중 건설회사에 취업했다. 아버지도 건설부문에 종사하고 있어서, 회사의 조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덕분에, 건설업이 여전히 남성 직원이 많은 직군이라는 점은 개의치 않았다. 출신현에 취업하려 한 이유를 묻자, W5는 "제 어릴 적부터의 꿈이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남편과 둘이서 아이를 키우려면 힘들다고 생각해서,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가까운 데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결혼 이후의 생활까지 고려해 직장을 선택했음을 분명히 했다.

W7도 "일하는 지역이 완전히 고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W7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도쿄에서 한 번 일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몇 년 동안 한정으로 도쿄에 있는 것은

좋지만 도쿄에서 취직하는 것은 역시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는 것도 있고, 대학 학자금 대출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역시 도쿄보다도 이렇게 지방도시에서 지역 출신이고 부모님도 있으니 보다 수준 높은 생활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규슈에 남기로 결정했다. 더구나 공무원의 업무가 "도쿄에서 하든, ○○[출신현]에서 하든 결국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에서 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여성 연구참여자 중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해서 규슈 지역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출신현으로 돌아가 금융회사에 취업한 W9는 취업활동을 할 때 중시한 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 번째는 규슈에서 취직하고자 생각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업무내용 면에서 제가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 사생활과 일을 제대로 양립할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취업활동을 했습니다." 규슈에 남고 싶었던 이유를 묻자, "만약 도쿄에서 일한다면 매일 사람이 많은 통근 전철을 타야 하는데,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답했다. 즉, 이 연구에 참여한 청년남성과 비교할 때, 청년여성은 직장을 선택할 때 개인의 발전 가능성만이 아니라,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형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일을 통해 삶의 보람을 얻거나 여유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기 위해 출신지역에 정주하기로 선택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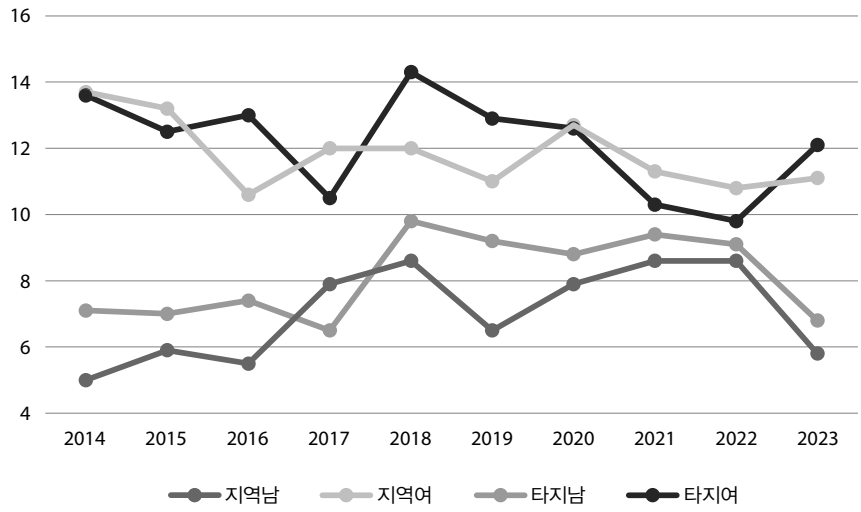
그런데 이와 같이 여성이 출신지역에 취업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은 대학 선택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W1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개발도상국의 아동을 지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 NPO에서 일해 볼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규슈에서 제조업부터 요식업까지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상담한 끝에, 출신현에 남아 아버지와 오빠의 일을 돕기로 했다. W1은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할 때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아버지는 W1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이런저런 일을 해 보고 싶다고 하면, 그런 일은 사업을 하면서 같이할 수 있다"면서, 본가에 남을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W1 자신도 "연수를 위해서 몇 개월 정

도" 도쿄에 가는 것은 괜찮겠지만,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도쿄에 사는 것은 괴로울 것 같다"며, 출신현에 남은 것을 후회하는 기색은 없었다. 대신, 도쿄권의 유명 사립대를 졸업하고 바로 유턴한 오빠와 함께 운영하는 카페에서 "장래에는 아동에 관한 워크숍을 열"고 싶다고 덧붙였다.[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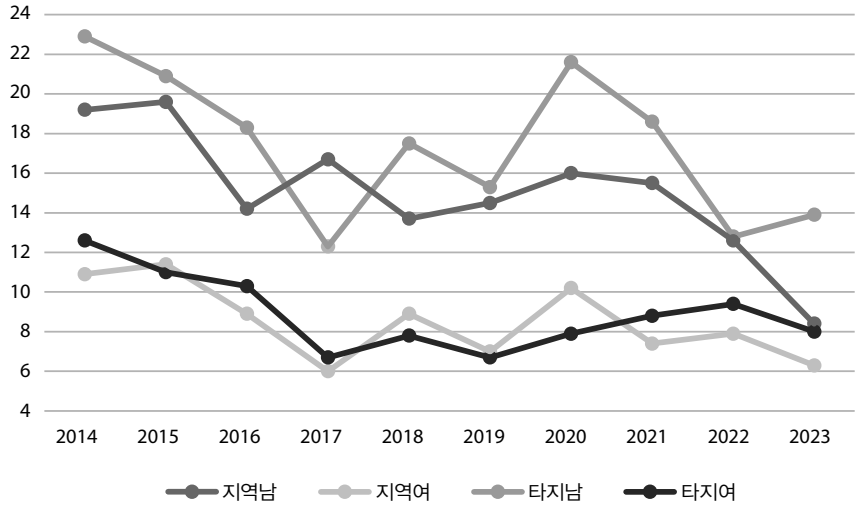
『마이나비 대학생 대학생 유턴·지모토 취직에 관한 조사』도 부모세대가 자녀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남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39] "출신지역(유턴 포함) 취직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의 선택지(복수 선택)에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출신지역에서 생활하라는 말을 듣고 있어서," "장남·장녀이므로"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2014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전자를 선택한 사람은 8.9~11%, 후자를 선택한 사람은 8.4~16% 정도였다. 두 항목을 선택한 비율이 높지 않고, 2020년대로 올수록 그 비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그림 2〉과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님의 뜻에 따라) 출신지역에서 생활하라는 말을 듣고 있어서"를 선택한 비율은 일관되게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장남·장녀이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 기간에 걸쳐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는 점이다. 즉, 대졸 청년여성은 대졸 청년남성에 비해 형제 간의 출생순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부모의 의사에 따라 출신지역에서 취업하길 '희망'하게 되는 셈이다.

38 이 논문의 2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터뷰했지만 타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 3명(남 1, 여 2)은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중 2명이 출신현으로 유턴했는데, 그중 한 명이 W1의 오빠다. 2021년 출신현으로 유턴한 여성은 도쿄권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2년간 직장생활을 한 후 이직했다. 따라서 두 사람은 각각 창업과 취업을 계기로 유턴했다. 남성은 유턴하고 3년이 지난 2018년 결혼했으며, 중학교 교사인 남자 친구가 있는 이 여성은 "결혼은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다.

39 マイナビ, 『マイナビ大学生Uターン·地元就職に関する調査』(2012年～2023年), https://career-research.mynavi.jp/reserch/20220511_27878/(최종 검색일: 2023. 3. 15.).



〈그림 2〉 출신지역 취업희망 이유: 부모의 권유



〈그림 3〉 출신지역 취업희망 이유: 장남 또는 장녀

출처: マイナビ, 『マイナビ大学生Uターン · 地元就職に関する調査』, 각 연도.

비고: '지역남'과 '지역여'는 출신현의 대학에 진학한 남성과 여성을, '타지남'과 '타지여'는 타지역의 대학에 진학한 남성과 여성을 뜻한다. 『マイナビ大学生Uターン · 地元就職に関する調査』는 2012년부터 시작됐지만, 2012년 조사에는 출신지역에 취업하길 희망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의 선택지에 "(부모님의 뜻에 따라) 출신지역에서 생활하라는 말을 듣고 있어서", "장남 · 장녀이므로"라는 항목이 없었고, 2013년 조사에는 두 항목이 포함됐지만 여러 항목 중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림 2〉와 〈그림 3〉에는 응답 항목과 조사방법이 일관된 2014년 이후의 자료만 정리해서 제시했다.

『마이나비 대학생 대학생 유턴·지모토 취직에 관한 조사』에는 부모와 친족 중 누구와 취직에 관해 의논하고, 이들에게 받는 충고가 취직활동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얼마나 출신지역 취직을 의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취업에 대한 상담은 대졸 남녀 모두 주로 어머니와 한다고 응답했다. 2014년부터 2023년 사이에 부모와 친족으로부터 조언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8~79.3%, 지모토 취직을 의식하게 됐다는 비율은 57.9~73.7%로 나타났다. 그리고 출신현의 대학에 진학한 여성이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부모의 충고를 받은 후 지모토 취직을 의식하게 됐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타지역의 대학에 진학한 여성과 같은 조건의 남성을 비교했을 때도 2018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마이나비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출신지역에서 취업하라고 충고하는 편이며, 특히 어머니로부터 이런 충고를 받은 딸은 아들에 비해 출신지역에서 취업하려는 의식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대졸 지방청년이 대학에서 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에 성별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때 중시하는 기준이 달랐다. 사회적 가치나 직업적 안정성을 직장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한 남성 연구자는 전혀 없었고 이들은 오로지 취업 기회와 개인적 발전 가능성을 중시하며 직장을 선택했다. 반면 여성 연구참여자는 직업 선택 시, 개인의 직업적 확장 가능성만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 결혼 이후 생활의 편의성, 사회에 대한 기여, 일과 생활의 균형, 사회심리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가치를 출신지역에 남아 실현하고자 했다. 그리고 대학 진학 시점과 마찬가지로, 취업할 때도 청년여성이 청년남성보다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표 4〉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졸 청년여성의 현내 취업률이 같은 조건의 남성에 비해 일관되게 높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6. 성별에 따른 유턴 계기의 차이

이 연구에 참여한 지방청년은 대체로 출신현이나 규슈 지역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다. W6은 학창 시절을 규슈의 여러 현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지모토라고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했고, 인구 10만 미만의 시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살다가 다른 현에 있는 국립대학을 졸업한 후 도쿄의 대기업에 취직한 M7은 스스로 "지모토를 버린 인간"이라며 부모님이 계신 곳에 돌아갈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성별에 관계없이 가족과 친구가 있고 자연을 즐기면서 비교적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규슈를 좋아했다. 다른 지역에 취업했던 청년들도 M7을 제외하면 규슈로 돌아오고 싶어했다.

그러나 대학 진학이나 취업 시 지역 간 이동을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지방청년들이 출신지역으로 돌아오는 계기를 설명하는 방식도 성별에 따라 달랐다. 타 지역에 취업한 청년여성 4명(W2, W3, W4, W12)은 모두 결혼이나 출산을, 부모님이 계신 출신지역에 돌아오는 중요한 계기일 것이라고 예상했다.[40] 도쿄권의 의류회사에 취업한 W3에게 출신현으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 묻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면 좀 더 충실한 생활을 하고 싶고, 자연이 풍부한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턴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원격근무가 가능하다고 해서 도쿄권의 회사에 취업한 W4도 "제가 지모토에 돌아올 타이밍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가정을 꾸린다거나 결혼할 때가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생각하면, 저는 가정을 가진 다음부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생각은 없어서요."라고 말했다.

결혼하고 타 지역에서 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W2도 "제 마음 속으로는 ○○[출신현]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에 함께 살아 줄 사람이 좋다고 생각합니

40 출신현에서 취업했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여성청년 중 일부(W5, W8, W10)도 육아 등을 고려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는 출신현에서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했다.

다. 그리고 어머니도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가족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또 △△[오사카권]에 사는 언니가 곧 결혼할 예정이라, 딸 두 명 중 한 명은 ○○에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때문이라도 ○○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즉, 출산과 자녀양육, 부모 돌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청년여성은 가족관계 및 본인의 가족형성을 유턴의 중요한 계기로 간주했다.

인터뷰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후에 결혼한 W12와 M5는 유턴을 바라보는 남녀 간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두 사람은 규슈에서 같은 대학을 나와, 도쿄권에서 같은 대학원에 다녔고, 다시 같은 IT기업에 취업했다. 둘 다 젊었을 때는 대도시에 있는 큰 회사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30대 정도에는 규슈에 돌아가자고도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유턴의 계기를 설명하는 방식은 확연하게 달랐다. 어떤 일을 계기로 규슈에 돌아올 것 같냐는 질문에 W12는 "첫 번째는 아이가 태어나서, 예를 들어 제 아이가 있는 동안은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고, 퇴직을 하게 되면 장소에 속박되지 않아도 되니까, [출산이 유턴할] 계기로서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반면, M5는 같은 질문에 "어느 정도 기술이 붙어서 혼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나서부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20대 이후의 시공간을 전부 함께 한 W12와 M5이지만, 유턴의 계기로 고려하는 것은 출산과 일로 확연하게 달랐다.

청년남성 중에도 결혼이나 부모 돌봄을 계기로 출신현이나 규슈에 돌아올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다(M1, M2, M3, M6). 후쿠오카현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M2는 당장 부모님이 계신 출신현으로 갈 계획은 없다고 했다. 아버지가 형제 중 한 명은 지모토에 남아 주길 기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요리를 배워 지모토에 가게를 내고 싶어 하는 남동생이 그런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여겼다. "장래에는 부모를 돌보는 일도 있어서 지모토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결혼해서 살고 싶은 곳은 딱히 없다고 했다. 이처럼, 남성 연구참여자는 결혼해서 어느 지역에 살든 개의치 않았고, 부

모를 돌보기 위해 언젠가는 출신지역에 돌아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데 머물렀다.

M3은 졸업한 대학이 있는 "○○시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는 타이밍"에 맞춰 "30세쯤에는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과 유턴을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긴 했지만, 청년여성들처럼 결혼을 계기로 규슈에 돌아오려는 것은 아니었다. "커리어 플랜으로는 언젠가는 △△[출신현]에 돌아오고 싶다고 생각해서요. 20대, 즉 30세까지 어떻게 살아갈지 일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그때까지 얻은 경험을 토대로 △△에서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 돌아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본인이 아티스트로서 일을 할 능력을 갖춰서, 선배들처럼 대학가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돌아오고 싶고, 그 시점에 결혼이라는 "개인적인 생활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유턴에 대해 막연한 생각밖에 없는 남성 연구참여자들도 스스로 지모토 지향적이라고 대답했다. 이공계 대학원에 재학 중인 M4는 "취업할 때 ○○[출신현]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뿐, 기본적으로 ○○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지요."라며, 출신현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이라고 말했다. 전공을 살려 "일단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평생 봉급생활자로 살 생각은 없어서, 지모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는 질문에도 "사실은 마을 만들기에 어느 정도 흥미가 있어서요. ○○에 돌아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당장 유턴할 계획이 없다고 했던 M2도 스스로 지모토 지향이 강한 편이라며 그 이유를 출신지역에서 매년 열리는 축제(祭り)와 연관시켜 설명했다. "제 지모토에서는 큰 축제가 열리는데요. 매년 11월 초에 개최하는데, 이때가 되면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에서 일하는 사람도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지모토에 돌아옵니다. 이로부터 저의 지모토에 대한 의식이라거나, 축제라는 상징적인 것을 목표로 [지모토에] 돌아온다거나 그런 문화를 계승

하기 위해서 지모토에 돌아가는 것에서 저의 지모토 지향이 강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M2는 규슈이기는 하지만 출신현이 아닌 곳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학창 시절처럼 지모토에서 열리는 축제를 준비하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는 없다. 단지 축제가 열리는 날 가마를 메거나 줄을 당기는 역할을 할 뿐이다. 하지만 가족 중에서도 아버지만 축제에 관여하며, 타지에 생활하는 자신도 축제를 매개로 지모토와의 관계를 지속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인의 결혼이나 부모 돌봄을 지모토와 관계를 맺는 매개항으로 간주하는 청년여성과 달리, 장남인 M2는 아버지와 함께 이에(家)의 대표자로서 지역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지모토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정리하면, 지모토에 대한 감정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지방청년들 사이에서도, 성별에 따라 지모토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랐다. 청년여성은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출신지역과 관계를 재형성함으로써 지모토를 사적인 공간으로 의미화한 반면, 청년남성은 출신지역에서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고 지역축제에 관여하는 등 지모토를 공적인 장으로 전유했다.

7. 성별화된 로컬 트랙

이 연구에 참여한 규슈 지역의 청년여성은 청년남성에 비해 지리적 요인에 방점을 두고 자신의 진로 선택을 설명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서 지리적 요인은 출신지역이라는 물리적인 장소(에 대한 애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족과 맺는 관계(에 대한 의미 부여)까지 포함한다. 지방권의 여성이 남성보다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서 출신지역의 대학에 진학하고 그곳에서 취업한 것이 아니라, 출신지역에서의 인간관계와 그로부터 습득한 성별화된(gendered) 문화적 규범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다.

남녀 모두 규슈 지역의 대학에 진학했으나 남성은 개인주의적 가치관

에 입각해 자신의 진로 선택을 기술한 반면, 여성은 자신을 둘러싼 관계성을 고려해 진로 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남성은 능력주의적 관점에서 취업과 지리적 이동의 관계를 해석한 반면, 여성은 내면화된 성역할 규범에 입각해 이 문제를 사고했다. 결론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지방청년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딸과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르고, 청년 스스로도 서로 다른 가치기준을 적용하므로, 대학 진학과 취업 시 성별에 따라 상이한 지리적 이동의 패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41]

규슈 출신 대졸 청년의 진로 선택에 관한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지방청년에 대한 연구의 폭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타야마 유키와 마키노 도모카즈는 교육사회학 분야에서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방청년에 대한 연구가 미미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출신지역에 머무는"(地元に留まる) 저학력(低学歴) 청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42] 비슷한 시기부터 교육사회학 이외의 여러 분야에서도, 지방에 남는 청년과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한 연구,[43] 지방청년이 취업에서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겪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44] 지역공동체와 직장에서 맺는 인간관계나 젠더 규범에 속박되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빠지는 지방청년에 대한 연구[45] 등 비(非)엘리트 지방청년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41 마찬가지 이유로 재학생의 거의 100%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위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도 남녀 사이에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차이가 난다. 남학생은 대학의 이름을 중시하거나 도시권에 있는 대학을 선호하며 재수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학생은 결혼과 육아로 일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간호사, 교사와 같은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며, 부모의 요구로 집에서 근거리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伊佐夏実,「難関大に進学する女子はなぜ少ないのか: 難関高校出身者に焦点をあてたジェンダーによる進路分化のメカニズム」,『教育社会学研究』, 第109集, 2022, 5~27쪽; 佐伯厘咲 他,「進学校に在籍する高校生の進路選択における男女差: 調査概要とメカニズムの探求」,『大阪大学教育学年報』第28号, 2023, 42~44쪽.

42 片山悠樹·牧野智和,「教育社会学における地方の若者」,『教育社会学研究』第102集, 2018, 17~20쪽.

43 이시구로 이타루 외,『지역청년, 왜 떠나는가: 동경으로 향하는 일본의 젊은이들』.

44 石井まこと 他 編,『地方に生きる若者たち: インタビューからみえてくる仕事·結婚·暮らしの未来』, 東京: 旬報社, 2017.

45 打越正行,「ライフコースからの排除: 沖縄のヤンキー, 建設業の男性と暴力」,『現代思想』第47券 第4号, 2019, 89~97쪽; 打越正行,「排除 1: 不安定層の男たち」, 岸政彦 他『地元を生きる』, 京都: ナカニシヤ出版, 2020, 263~370쪽; 上間陽子,「排除 2: ひとりで生きる」, 岸政彦 他,『地元を生きる』, 京

이상의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청년층이 겪는 이행기의 어려움을 암묵적으로 도시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제조업체의 해외이전과 인구의 고령화 및 유출로 인해, 일자리의 수와 다양성이 동시에 줄어든 지방권의 상황에서, 청년이 직면하는 과제의 특수성을 보여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비엘리트층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46] 지방청년에 대한 선행연구는 지방권에서 살아가는 대졸 청년의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를 등한시했다.

이 연구는 일본 경제 시스템이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대도시에 가더라도 크게 유리할 것이 없는 고졸 청년과는 달리,[47] 학력자본을 활용해 대도시에서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는 대졸 지방청년이 출신지역에 남거나 돌아오려는 이유를 다뤘다. 이로써, 지방청년이 쇼핑몰과 같은 편리한 소비환경이나 가족 및 친구와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48] 지방권에서도 안정적인 직업을 얻어 지역사회에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49] 즉, 이 연구는 지방청년 중에서도 하위계층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청년이 구성하는 생활세계의 다양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이 연구는 대학 진학과 취업 시 지방청년의 지리적 이동에서 나타나는 남녀 사이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지방권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청년을 출신지역에 정착시키는 로컬 트랙(local track)만이 아니라, 청년여성을 출신지역에 잔류·귀환하도록 만드는 성별화된 트랙(gendered track)이 존재한

都: ナカニシヤ出版, 2020, 371~435쪽.

46 다만, 지방의 고졸 청년 중에서도 연줄을 활용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연구는 있다. 上原健太郎, 「没入: 中間層の共同体」, 岸政彦 他, 『地元を生きる』, 京都: ナカニシヤ出版, 2020, 189~262쪽; 尾川満宏, 「若者の移行経験にみるローカリティ: 仕事, 家族, 地元のリアリティをめぐる社会 = 空間的アプローチの可能性」, 『教育社会学研究』 第102集, 2018, 57~77쪽; Mitsuhiro Ogawa, Qingyi Zhang, Yu Chen, and Hiroyuki Yamada, "From the Reproduction of Social Class to the Production of Locality: Focusing on the Narratives of Young Working Class Men in Rural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18, 2023.

47 阿部誠, 『地域で暮らせる雇用: 地方圏の若者のキャリアを考える』.

48 阿部真大, 『地方にこもる若者たち』, 2013.

49 轡田竜蔵, 『地方暮らしの幸福と若者』, 東京: 勁草書房, 2017.

다는 점을 시사한다. 로컬 트랙이란 "각 지방 출신자가 학력(学力)에 의한 진로선택과는 별도로, 스스로의 지역이동에 대해 선택해 나가는 진로의 흐름"이다.[50] 간단히 말해, 로컬 트랙은 지방현에서 행정, 교육, 의료 등 전문분야를 담당할 지역 엘리트를 양성하고 재생산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고졸자보다 지리적 이동 가능성이 더 높은 대졸자가 왜 지방에 남는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그러나 로컬 트랙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왜 지방권의 청년여성이 청년남성에 비해 출신지역의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설령 대도시권에서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돌아오려고 하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 더구나 지모토 지향을 공유하는 지방청년 중에서도 왜 여성이 주로 결혼이나 출산이라는 생애주기상의 개인적 사건을 계기로 유턴하려고 하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청년여성에게 유턴은 출산 이후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왜 이런 압력을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하게 경험하며 자신의 진로선택을 설명하는 논리로 동원하는가는 로컬 트랙이라는 제도적 차원만이 아니라, 젠더 역할의 내면화라는 문화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다. 이 연구는 지방권에는 학업성적 우수자를 지역사회의 예비 엘리트로 양성하고 그곳에 정착시키려는 사회적인 힘만이 아니라, 남녀에 대한 상이한 기대나 가치관을 재생산하여 청년여성을 지방에 긴박(緊縛)하는 문화적인 힘이 작동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지방권에는 청년 남녀에게 상이한 진로가 기대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성별화된 트랙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두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지방청년의 부모세대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규범의식 혹은 성별역할규범이 일상에서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을 다루지 못했고,[51] 이

50 吉川徹, 『学歴社会のローカル·トラック: 地方からの大学進学』, 223쪽.

51 아사히나 유키는 도쿄와 서울의 20~30대가 가진 불평등·불공평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한 발표에서, 도쿄의 청년여성은 서울의 청년여성에 비해 남녀 간의 차이나 격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남녀의 4년제 대학 진학률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불평등한

러한 메커니즘이 대졸 지방청년의 진로 선택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상세하게 밝히지 못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규슈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규슈 지역의 각 현 사이의 차이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청년의 자기 해석에 주목한 탓에, 규슈 지역의 산업구조가 남녀의 지리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또한, 후쿠오카현과 규슈의 다른 6개 현 사이에는 인구, 경제규모, 대학설치현황 등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 하지만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이라는 3대 도시권 이외의 지역을 모두 지방현으로 분류하는 관례에 따라 연구를 설계한 탓에, 후쿠오카현 출신의 '지방청년'과 다른 현 출신의 '지방청년' 간의 차이는 다루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방권의 부모세대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진로를 권유하는가를 탐구하고, 지방권의 지역적 특성과 지방권 내부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하며 '지방청년'의 성별 간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교육달성), 여성은 정규직으로 취업하더라도 승진이 힘든 일반직에 배정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기(불평등한 노동시장) 때문이다. 게다가 제도적 불평등은 간과한 채, 사회이동은 개인의 노력 및 능력의 결과라고 믿기 때문에(능력주의), 도쿄의 청년여성은 남녀 간의 차이를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일이라고 받아들인다. 즉,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여전히 남성보다 적고, 따라서 남성이 더 유리한 고용상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똑같이 대학을 나온 남녀가 회사 내에서 서로 다른 트랙에 배정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이러한 상황을 수용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 연구가 시사한 바와 같이, 일본 사회에 젠더 규범이 고착되는 메커니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고용제도의 영향만이 아니라 가족 내 사회화 방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朝比奈祐揮,「平等主義のパラドックス: ソウルと東京のミレニアル世代に聞いた不平等と不公平」, 서울대 일본연구소 제275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2023. 4. 11.

투고일자: 2023. 3. 27. | 심사완료일자: 2023. 4. 10. | 게재확정일자: 2023. 5. 11.

二宮周平 編,『性のあり方の多様性: 一人ひとりのセクシュアリティが大切にされる社会を目指して』, 日本評論社, 2017.

棚村政行·中川重徳,『同性パートナーシップ制度: 世界の動向·日本の自治体における導入の実際と展望』, 日本加除出版, 2016.

谷口洋幸,「日本における同性カップルをめぐる権利保障運動の展開」,『日本ジェンダー研究』19, 2016.

杉浦郁子,「制度との応酬によるニーズ認識: 同性カップルの法的保障ニーズをめぐって」,『和光大学現代人間学部紀要』12, 2019.

新ヶ江章友,「ダイバーシティ推進とLGBT / SOGIのゆくえ: 市場化される社会運動」, 岩渕功一 編,『多様性との対話』, 青弓社, 2021.

岡野八代,「平等とファミリーを求めて」,『現代思想』43巻 16号, 2015.

『産経新聞』, 2015. 10. 5.

Duggan, Lisa, "The New Homonormativity: The sexual Politics of Neoliberalism," in Russ Castronovo and Dana D. Nelson, eds., *Materializing Democracy: Toward a Revitalized Cultural Polit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2.

Ritchie, Jason, "Pinkwashing, Homonationalism, and Israel-Palestine: The Conceits of Queer Theory and the Politics of the Ordinary," *Antipode* 47(3), 2015.

연구논단

일본 지방청년의 진로 선택 시 성별에 따른 지역 간 이동의 차이 | 박지환

마스다 히로야, 김정환 옮김,『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와이즈베리, 2015.

이시구로 이타루·이영준·스기우라 히로아키·야마구치 케이코, 엄창옥·박상우·노광욱·김영철·이영준·신두섭·박만봉 옮김,『지역청년, 왜 떠나는가: 동경으로 향하는 일본의 젊은이들』, 박영사, 2014.

朝比奈祐揮,「平等主義のパラドックス: ソウルと東京のミレニアル世代に聞いた不平等と不公平」, 서울대 일본연구소 제275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2023. 4. 11.

安立清史,「'地元意識'という謎: 大学生の地元意識に関する因子分析」,『人間科学共生社会学』第9号, 2019.

阿部誠,『地域で暮らせる雇用: 地方圏の若者のキャリアを考える』, 東京: 旬報社, 2021.

阿部真大,『地方にこもる若者たち』, 東京: 朝日新聞出版, 2013.

伊佐夏実,「難関大に進学する女子はなぜ少ないのか: 難関高校出身者に焦点をあてたジェンダーによる進路分化のメカニズム」,『教育社会学研究』第109集, 2022.

石井まこと·宮本みち子·阿部誠 編,『地方に生きる若者たち: インタビューからみえてくる仕事·結婚·暮らしの未来』, 東京: 旬報社, 2017.

井寺美穂,「大学生の地元就職志向に関する研究」,『アドミニストレーション』第27券 第2号, 2021.

上原健太郎,「没入: 中間層の共同体」, 岸政彦·打越正行·上原健太郎·上間陽子,『地元を生きる』, 京都: ナカニシヤ出版, 2020.

上間陽子,「排除 2: ひとりで生きる」, 岸政彦·打越正行·上原健太郎·上間陽子,『地元を生きる』, 京都: ナカニシヤ出版, 2020.

後河正浩,「若者の地域間移動の傾向と要因: 都道府県データでみる大学進学·初職就職時の地域間移動」,『京都産業大学経済学レビュー』6, 2019.

打越正行,「ライフコースからの排除: 沖縄のヤンキー, 建設業の男性と暴力」,『現代思想』第47巻 第4号, 2019.

打越正行,「排除 1: 不安定層の男たち」, 岸政彦·打越正行·上原健太郎·上間陽子,『地元を生きる』, 京都: ナカニシヤ出版, 2020.

尾川満宏,「若者の移行経験にみるローカリティ: 仕事, 家族, 地元のリアリティをめぐる社会 = 空間的アプローチの可能性」,『教育社会学研究』第102集, 2018.

荻野達史,「'地方'の存続と'若者'問題: 適切な論じ方をめぐって」.『人文論集: 静岡大学 文理学部文学科 研究報告』第73巻 1号, 2022.

片岡佳美,「親は子どもの県外移住にどのように関与したのか: 島根県若年層人口流出と家族実践についての一考察」,『ソシオロジ』第64巻 第3号, 2020.

片岡佳美·吹野卓,「高校生の地元·都会に対する意識と親の家族実践: 島根県の親子ペアデータの分析から」,『山陰研究』第13号, 2020.

片山悠樹·牧野智和,「教育社会学における地方の若者」,『教育社会学研究』第102集, 2018.

川田力,「九州地方における大学進学移動の時系列的推移」,『岡山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研究集録』第179号, 2022.

吉川徹,『学歴分断社会』, 東京: 筑摩書房, 2009.

吉川徹,『学歴社会のローカル·トラック: 地方からの大学進学』, 京都: 世界思想社, 2001.

轡田竜蔵,「過剰包摂される地元志向の若者たち」, 樋口明彦·上村泰裕·平塚眞樹 編,『若者問題と教育·雇用·社会保障』, 東京: 法政大学出版局, 2011.

轡田竜蔵,『地方暮らしの幸福と若者』, 東京: 勁草書房, 2017.

轡田竜蔵,「若者の幸福とトランスローカリティ」,『都市問題』第111巻 第1号, 2020.

経済産業省九州経済産業局,『九州経済の現状2021年版』, 2022, https://www.kyushu.meti.go.jp/keiki/chosa/genjyo/genjo_2021_r2.pdf(최종 검색일: 2023. 4. 27.).

佐伯厘咲·打越文弥·徳安慧一·福島由依·黒木禎子·松岡佳奈,「進学校に在籍する高校生の進路選択における男女差: 調査概要とメカニズムの探求」,『大阪大学教育学年報』第28号, 2023.

指出一正,『ぼくらは地方で幸せを見つける: ソトコト流ローカル再生論』, 東京: ポプラ社, 2016.

杉山成,「大学生における地元志向意識とキャリア発達」,『小樽商科大学人文研究』第123輯, 2012.

総務省,「住民基本台帳人口移動報告2022年結果」, https://www.stat.go.jp/data/idou/2022np/jissu/pdf/all.pdf(최종 검색일: 2023. 3. 15.).

就職みらい研究所,『大学生の地域間移動に関するレポート: 大学キャンパス所在地から見る 就職予定先所在地までのパターン』, 2016年~2023年, https://shushokumirai.recruit.co.jp/category/study_report_article/region/(최종 검색일: 2023. 4. 29.).

田澤実·梅崎修, 2018,「地元志向がキャリア意識および保護者とのかかわりに与える影響: 全国の就職活動生を対象にして」,『地域イノベーション』第10巻.

田村一軌,『大学進学にともなう都道府県間人口移動』, 北九州市: アジア成長研究所, 2017.

寺地幹人,「若者にとっての'地元': 青少年研究会2014年調査をもとに」,『茨城大学人文学部紀要 社会科学論集』第63号, 2017.

中川雅貴,「非大都市圏出生者における U ターン移動の変化に関する分析: 特集 第 8 回人口移動調査の結果から その 2」,『人口問題研究』第75巻 4号, 2019.

難波功士,『人はなぜ〈上京〉するのか』,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1.

平尾元彦·重松正徳,「大学生の地元志向と就職意識」,『大学教育』第3号, 2006.

平尾元彦·田中久美子,「就職活動を通じた地元志向の変化」,『大学教育』第13号, 2016.

吹野卓·片岡佳美,「地方の進学希望高校生の転出意識: 生徒と保護者のペアデータの分析」,『社会文化論集』第16号, 2020.

マイナビ,『マイナビ大学生Uターン·地元就職に関する調査』, 2012年～2023年, https://career-research.mynavi.jp/reserch/20220511_27878/(최종 검색일: 2023. 3. 15.).

松永桂子,「若者の'ローカル志向'から時代を読む」,『日経研月報』第457号, 2016.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若者の地域移動』, 東京: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15.

山口泰史·松山薫,「戦後日本の人口移動と若年人口移動の動向」,『東北公益文科大学総合研究論集』第27号, 2015.

山口泰史·江崎雄治·松山薫,「山形県庄内地域における若年人口の流出と親世代の意識」,『地学雑誌』第125券 第4号, 2016.

横田明子,「大学生の就職活動における地元志向に及ぼす家族関係の影響」,『広島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第二部, 文化教育開発関連領域』第66号, 2017.

Hansen, Paul, "Rural Emplacements: Linking Heterotopia, One Health and Ikigai in Central Hokkaido," *Asian Anthropology* 21(1), 2022.

Hori, Yukie and Yuri Nakajima, "School-to-Work Transitions for Japanese Youth in a Globalized Era," in Akiyoshi Yonezawa, Yuto Kitamura, Beverley Yamamoto, and Tomoko Tokunaga, eds., *Japanese Education in a Global Age*, Singapore: Springer, 2018.

Ishikawa, Yoshitaka, "Internal Migration in Japan," in Martin Bell, Aude Bernard, Elin Charles-Edwards, and Yu Zhu, eds., *Internal Migration in the Countries of Asia*, Cham, Switzerland: Springer, 2020.

Klien, Susanne, *Urban Migrants in Rural Japan: Between Agency and Anomie in a Post-Growth Society*, New York: SUNY Press, 2020.

Kurochkina, Ksenia, "Japanese Rural Resettlers: Communities with Newcomers as Heterotopic Spaces," *Asian Anthropology* 21(1), 2022.

Ogawa, Mitsuhiro, Qingyi Zhang, Yu Chen, and Hiroyuki Yamada, "From the Reproduction of Social Class to the Production of Locality: Focusing on the Narratives of Young Working Class Men in Rural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18, 2023.

연구논단

일본 지방청년의 진로 선택 시 성별에 따른 지역 간 이동의 차이 | 박지환

이 논문은 대졸 지방청년들 사이에서 진로 선택의 이유 및 출신지역과 관계 맺는 방식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본인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는 추세가 나타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리적 이동의 패턴이 발생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규슈 지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20대 청년 남녀 20명과 2021~2022년에 온라인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진학, 취직, 유턴의 시점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의 차이를 분석했다.

지방권의 청년여성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첫 직장을 구할 때, 개인의 관심사나 능력만큼이나 가족관계를 중시하고 부모의 의견에 따라 출신지역에 남으려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이라는 사적인 일을 계기로 출신지역에 돌아오길 희망했다. 반면, 지방권의 청년남성은 대학이나 회사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관심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경력을 쌓아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지방에 돌아오거나, 축제와 같은 지역사회의 공적인 장에 이에(家)의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넓은 의미에서 공적인 영역—일터와 지역공동체—에 관여함으로써 출신지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로써, 이 연구는 지방청년 남녀에 대한 상이한 기대나 가치관을 재생산하여 대졸 청년여성을 지방에 긴박(緊縛)하는 문화적인 힘이 작동하며, 그 결과 성별화된(gendered) 로컬 트랙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지방청년, 지모토 지향, 현내 대학 진학 및 취업, 성별, 로컬 트랙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일 간 에너지 관계: 사할린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 임은정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그 어느 나라보다 비판적이면서 제재를 단행한 일본이지만, 사할린 프로젝트는 계속 참여하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일 간 에너지 관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사할린 프로젝트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급 다변화, 가격 안정성 확보,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지전략적 판단이라는 명분으로 정치권, 정부, 산업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일본의 가스판 "보상의 서클"은 사할린 프로젝트를 대러시아 제재와 분리하며 사업 계속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는 향후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가와 같은 미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익을 공유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연합체에 의해 추진된 결정인 만큼 앞으로도 쉽게 번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주제어: 우크라이나 전쟁, 러일관계, 에너지 안보, 보상의 서클, 사할린 프로젝트

일본의 '안락사 사건'과 안락사에 대한 논의 | 김율리

본 논문에서는 전후부터 현재까지 일본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안락사 사건'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분석한 후 현재 일본에서 안락사를 둘러싼 논의를 검토한다. '안락사 사건'의 첫 번째 유형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 가족구성원에 의한 것, 두 번째는 병원에서 환자 본인의 요청 없이 의사에 의해 시행된 것, 세 번째는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스스로 안락사 방법을 찾아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안락사 사건의 유형 변화는 사회 변동,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The hostage justice is also often defined as the prosecutor's justice, and many problems are pointed out with regard to the investigation of Korean prosecution, which has more authority than that i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 **Keywords**: criminal justice, criminal procedure law, hostage justice, comparative law, detention, suspect

---

ARTICLES

Gender Differences in Regional Mobility and Career Choice among Japanese Non-metropolitan Youths | PARK Jeehwan

This research aims to shed light on gender differences among non-metropolitan youths in their transition to higher education and work, as well as their engagement to their hometowns. Despite their shared attachment to their hometowns, young women are more likely to attend local universities and find work in their home areas than men. However, existing studies have failed to address these gender disparities in geographical mobility. To fill this gap, this study conducted online interviews with twenty youths from the Kyushu region who graduated from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there. The research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se youths explain and interpret gender differences in their experiences of university admission, employment, and return migration.

When advancing to university and finding work, non-metropolitan women prioritized familial ties and often gave weight to their parents' opinions, in addition to considering their own academic abilities and interests. As a result, they often ended up attending local universities and finding work in their home areas. They also wished to return to their hometowns upon getting married and starting their own families. On the other hand, their male counterparts prioritized their own interests and abilities when making these decisions, without placing as much emphasis on the location of universities and workplaces. They expressed a desire to return to and maintain relationships with their hometowns, whether through starting their own businesses there or participating in local festivals as representatives of their families.

Overall,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re is a cultural dynamic at play that may reproduce normative and binding gender roles, discouraging young non-metropolitan women from leaving their hometowns. As a result, this study illuminates that a kind of gendered local track may form that keeps young women with college diploma in non-metropolitan Japan.

• **Keywords**: Non-metropolitan youths, attachment to hometown, advancement to local university, employment in home prefecture, gender, local track